



모빌리티 보안 시장의 게임 체인저 V2X 통신 보안 선도기업 새솔테크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과 완전자율주행 시대로의 전환은 차량과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필수 기반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초연결 모빌리티 환경에서 통신 데이터의 '신뢰성'과 '보안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새솔테크(대표 한준혁)는 첨단 모빌리티 보안 분야를 선도하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새솔테크의 핵심은 차량 내부부터 네트워크 백엔드까지 V2X/V2N이 적용되는 모든 통신 구간을 아우르는 올인원 모빌리티 보안 솔루션 'S2X™'이다. 특히,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데이터의 무결성과 진위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V2X 보안 클라이언트 'S2X Client'와 대규모 보안용 인증서를 발급·관리·운영하는 V2X PKI 서버 'S2X PKI' 등 주력 솔루션들은 국내외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그 성능과 안정성을 확고히 입증해왔다.

새솔테크는 국내 기술 표준화에 기여함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확고한 기술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술적·제도적 진입 장벽이 높은 북미 시장에서 SCMS 매니저의 Production CTL(인증서 신뢰 목록)에 북미 외 국가 중 최초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공식적인 V2X 보안 서비스 제공 자격을 획득했다는 의미다. 또한, 국제 인증기관인 '옴니아어(OmniAir)'의 사이버보안 분과에서 'IEEE 1609.2.1 보안인증규격' 시험 규격 제정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표준화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모빌리티 보안 솔루션으로 미래 교통의
‘신뢰 기반’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 새슬테크 **한준혁** 대표

새슬테크의 주요 사업 영역과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요?

새슬테크의 핵심 서비스는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보안입니다. V2X는 차량이 주변의 차량(V2V), 인프라(V2I), 보행자·자전거(VRU), 네트워크(V2N) 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로, 미래 완전자율주행 생태계를 구축하는 필수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통신 과정에서 생성되는 V2X 메시지에는 다양한 센서 정보와 개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안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차량뿐 아니라 도로 인프라, 모바일 기기 등 서비스 전 구간에서의 보안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전장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술력을 갖춘 전문 기업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새슬테크는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춰,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통합 보안 솔루션 ‘S2X™’를 제공합니다. △V2X 보안 플랫폼 △보안 인증 서버 △시험 인증 장비 △모빌리티 특화형 KCMVP 검증필 암호모듈 등이 있으며, 다양한 통신 인프라와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으로 개발·상용화 중인 제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S2X™는 차량 내부부터 네트워크 백엔드까지 V2X/V2N이 적용되는 모든 통신 구간을 아우르는 올인원 모빌리티 보안 솔루션으로, 완전한 신뢰 기반의 모빌리티 환경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 중에서도 V2X PKI 보안 클라이언트 ‘S2X Client’, V2X PKI 서버 ‘S2X PKI’등을 중심으로 상용화와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2X Client – V2X 보안 클라이언트

S2X Client는 V2X 보안 소프트웨어 모듈로,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데이터의 무결성과 진위를 실시간으로 검증합니다. OBU(On-Board Unit), RSU(Roadside Unit) 등 다양한 단말에서 활용 가능하며 향후 자동차·오토바이·퍼스널 모빌리티 등 모든 이동 수단의 보안 확장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S2X PKI – V2X PKI 서버

S2X PKI는 V2X 통신 환경에서 대규모 보안용 인증서를 발급·관리·운영하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서버입니다.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다량의 익명 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관리, 갱신, 폐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북미,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의 CTL에 등재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검증된 보안 성능과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새솔테크의 올인원 모빌리티 보안 솔루션



대규모 보안용 인증서를 발급·관리·운영하는 S2X PKI

S2X Analyzer – V2X 보안 시험 인증 장비

S2X Analyzer는 새솔테크가 자체 개발한 V2X 보안 인증 시험·검증 솔루션으로, OBU, RSU 단말과 보안 인증 체계 간의 연동 적합성을 자동으로 평가합니다. 세계 최초 IEEE 1609.2.1 규격 테스트를 지원하며 국내외 V2X 인증체계 확산에 대응하는 필수 검증 장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제조사와 C-ITS 인프라 관련 기업이 보안 인증체계와의 연동 및 호환성 검증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S2X Secure Link - ITS 구간암호 및 인증고도화

S2X Secure Link는 차량과 서버 간 통신 구간을 보호하는 구간 암호화 및 인증 고도화 솔루션으로, 국가정보원 인증 암호모듈(KCMVP)을 적용해 국방 및 공공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보안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V2X 보안인증체계 분야에서 새솔테크가 주도적으로 확보한 기술 또는 표준화 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새솔테크는 V2X 전 구간에 걸친 보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보안 솔루션 S2X™를 선보인 이후, 여러 국내외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그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해왔습니다.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전장 부품업체와 협력해 완성차 제조사의 V2X 단말 양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기술의 신뢰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ITS Korea 기술표준 협의체 산하 'V2N2X 기술 표준화 작업반'의 간사사로 참여해, 보안 분야 표준화 논의와 기술 정책 수립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C-ITS 데이터 연계체계 표준화 연구영역, 한국도로공사 V2N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 인프라 조성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표준 기반 실증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은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새솔테크는 최근 북미 SCMS 매니저의 프로덕션 CTL(Production Certificate Trust List)에 등재되며, 북미 외 국가 중 최초이자 전체 두 번째로 등재된 기업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기술적·제도적 진입 장벽이 높은 북미 시장에서 공식적인 V2X 보안 서비스 제공 자격을 획득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미국 연방정부 주도 '하반기 V2X 구축 프로젝트'에서 S2X™ PKI(PKI 기반 보안 인증 서버) 공급을 위한 최종 선정 단계를 진행 중이며, 기술 평가에서 1위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표준화 영역에서도 새솔테크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옴니아어(OmniAir)'에서 사이버보안 분과내 IEEE1609.2.1 Testing 분과 의장사로서 'IEEE 1609.2.1 보안인증규격'의 시험 규격 제정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인증 및 표준화 분야에서도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새솔테크는 글로벌 인증기관 OmniAir의 사이버보안시험 규격 의장단으로 활동하며, 5GAA 총회에서 관련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새솔테크는 포천시와 유무인 이동체 산업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상)AUSA 2025, (하)ICT 신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

최근 시리즈B 투자 유치 후 드론·방산 분야로도 진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V2X 보안 기술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리즈B 투자는 새솔테크가 글로벌 시장 공략과 기술 확장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새솔테크는 최근 약 11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다수의 벤처캐피털과 기관이 참여했는데, 특히 방산 모태펀드가 포함되어 K-방산 분야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LIG그룹 계열사인 이노와이어리스의 전략적 투자로 V2X와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북미·유럽 시장 확장 ▲차량 보안 인증 서버(SCMS) 및 시험 장비 상용화 ▲국방·드론 보안 솔루션 고도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 인프라 전반에서 V2X 보안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AI 기반 보안 이상행위 탐지와 양자암호 연계 기술 등 차세대 보안 기술 개발도 병행하며, 미래 모빌리티 보안 생태계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기억에 남는 도전이나 위기 극복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사실 V2X 보안 기술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온 분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이 기술을 연구하던 전문가들이 하나 둘 현업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생기면서 ‘정말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기술은 20~30년이 지나야 실사용 단계에 오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믿고, 우리 기술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지를 영업팀과 함께 조사했습니다.



지난 10월, 새슬테크 임직원은 2025 옴니에어 플러그페스트 상호호환성 테스트와 커넥티드 모빌리티 워크숍을 참관하였다.

그래도 기술의 상용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기술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후에는 기술 완성도뿐 아니라 글로벌 신뢰를 쌓기 위한 표준화 활동에도 더욱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영업팀과 함께 미국 현지를 조사하던 중, 한 카운티에서 실제로 새슬테크의 V2X 보안 솔루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 기술을 믿어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직접 미팅을 이어가며 그들이 우리 기술을 진지하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도전들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새슬테크에게 가장 큰 도전이자 성장의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슬테크와 미국 교통부(USDOT) 간 첫 미팅을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새슬테크의 장점 중 하나를 꼽자면?

새슬테크의 가장 큰 장점은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도전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저희는 V2X 보안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보안 전문가 집단'만으로 이루어진 회사는 아닙니다. 임베디드 분야부터 서버, 네트워크, 클라우드까지 각기 다른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각자의 경험치를 녹여내면서 기술적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슬테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사업 확대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새슬테크

또 하나의 특징은 '도전적인 실행력'입니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처럼 모든 가능성을 검증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중하게 움직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때로는 즉흥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만큼 빠르게 실행하고 상상한 것을 현실로 바꾸는 문화가 있습니다. 새슬테크는 계획보다 실행을, 계산보다 도전을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회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슬테크의 기술이 향후 ITS 및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보시나요?

30년의 개발경험을 가지신 분부터 1년차 신입사원까지, 숙련된 기술력과 넘치는 패기를 갖춘 회사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처럼 혁신성과 고도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제품을 개발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V2X에서 시작된 PKI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신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차량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과 안전 및 품질을 만족하는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안이라는 분야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개발 및 검증,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개발자 및 보안관리자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 뿐만 아니라, C-ITS를 포함한 자율주행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 요소에도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차량 제조사와 인프라 제공자 모두의 목표달성에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미 Mcity 테스트 시설에서 V2X 인증서의 핸드오버/무중단 다운로드 트랙 데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새솔테크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인재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희는 V2X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왔지만, 이 기술이 완전히 보편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V2X 보안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솔테크는 자율주행과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비롯해 드론, 방산, 자율 발레파킹, ITS 보안 취약 지점 대응 기술, 그리고 금융·IoT 등으로 확장 가능한 응용 보안 기술까지 연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영역의 기술자가 아니라, 모빌리티 보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고민하고 실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율주행이나 C-ITS, 드론, 방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물론, 보안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영역을 탐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든 새솔테크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솔테크 임직원이 4주년 워크샵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